

투데이 칼럼

산림일자리로 경제·고용 한파를 넘어서자

**우** 리경제는 현재 대전환의 시점에 있다.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과 탄소중립사회 전환에 따른 여건 변화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방역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하지만 최근 변이종의 확산과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고강도 코로나 방역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높고 주요선진국 G7과 비교하면 가장 높아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산업과 고용 전반에서 후유증이 클 것이다.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문제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규제의 강화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이 명 규  
무주국유림관리소장

OECD 회원국의 탄소배출량이 줄었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어났다. 2019년 UN기후변화총회가 밝힌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60개국에서 58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한국 경제의 주력이었던 고탄소 배출 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분야에서는 큰 기회가 작용할 것이다.

숲과 산림은 탄소중립사회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고려하면 우

리 사회와 경제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받아 이른바 '코로나 우울'을 겪는 사람들에게 산림치유원이나 휴양림 등 산림휴양복지시설은 물론 휴식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며, 숲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들은 국민의 건강과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숲과 나무는 그 자체가 거대한 탄소저장고이자 일자리발전소이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공기중의 탄소를 저장하고 생명활동에 필요로 하는 산소를 생산해낸다. 특히 국산목재를 활용한 건축·소재·조경시설품 등은 그 자체로 탄소저

장 기능에 유효하며, 목재를 생산하고,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숲은 건강성을 유지한다.

산림을 지키고 가꾸며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에 106명의 일자리를 고용하였으며, 하반기에 56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림형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민주지산산도산림경영단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임산물을 생산·가공·유통을 할 수 있는 특화단지 조성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기존 생태지원인 숲과 나무를 이용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이제 숲과 산림이 단순히 다른 산업의 보조영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맡는 주축 산업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사설

도내 어느 개그맨 치과의사

전북 도내 개그맨 출신 치과의사 김영삼이 지난 2020년 10월 개그계를 떠난 이유를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그는 개그계를 떠나 치과의사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밝힌 것이다.

개그맨을 그만둔 건 스스로 못가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레지던트 시절 어느 날 TV를 보다가 KBS에서 개그맨을 뽑는다는 공고를 봤다. 당시 개그맨 공채 제한 연령은 만 27세였다.

나이가 턱거렸던 그는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응시했는데 탈락 합격자를 했다. 결국 2001년 KBS 16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그 뒤 개그콘서트에서 〈공부합시다〉 그리고 〈판판극장〉 등에 출연했다.

자기도 "치과의사 사이에서는 굉장히 웃긴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는 개그맨 시절 생계를 위해 치과에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도 했다. 최근 김영삼 치과의사는 유명 강사로 승승장구 중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을 오가며 사랑니 발치 강의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강연도 한다. 전 세계를 누비며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사랑니 발치는 물론 치과건강보험 관련 강연을 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iN에서 치의학 관련 파워 지식인으로도 활동을 한다. 그는 19년 동안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사랑니 발치 전문가로 우뚝 섰다. 지금까지 뺨 사랑니는 무려 2~3천개에 이른 다.

하루에 평균 40개 정도를 뺨다. 마취하고 설명하는 게 오래 걸릴 뿐 빼는 건 잠깐이다. 그는 이제는 개그맨이 아닌 치과의사로서 열심히 살아간다. 치과의로로서의 꿈과 바람이 크다.

이름 석 자를 알리는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한국 치과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사랑니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이 펼쳐진 충청권에서 과반(54.72%)을 득표했다.

발췌부터 이 지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수령으로 꼽히는 1차 선거인단 투표와 호남 순회 경선 결과가 모두 9월에 발표된다. 이달 내 최종 후보 윤곽이 사실상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16대 대선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첫 경선지 제주에서 3위(18.6%)에 그쳤다. 그러나 다음 날 펼쳐진 울산 경선에서 29.4%로 1위를 차지했다.

1주차 제주·울산 총합에서 1위(25.1%)에 오른 노 후보는 2주차 광주(37.9%) 돌풍에 힘입어 본선에 진출했다.

17대 통합민주당·19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역시 1주차 경선에서 승리하며 최종 후보가 됐다.

민주당에선 12일 1차 슈퍼 위

크(64만1900만 명)와 25일 광주·전남(12만7500명), 26일 전북(7만6000명) 등 호남 지역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11일 대구·경북(1만6100명)과 12일 강원(1만6200명)까지 마무리되면 45%가량 투표가 완료된 다.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한자리 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경선을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냐가 고민이 될 것 같다.

직선제 부활 이후 정권 재창출 시에는 네 번이다. 1987년 전두환에서 노태우, 1992년 노태우에서 김영삼, 2002년 김대중에서 노무현, 2012년 이명박에서 박근혜 등 모두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승리했다.

정권교체 시에는 1997년 김영삼에서 김대중, 2007년 노무현에서 이명박, 2017년 박근혜에서 문재인 등 세 번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컬러런' 행사 참석해 달리는 터키 사람들



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컬러런' 행사에 열려 옷과 얼굴에 각종 색상을 칠한 참가자들이 달리고 있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다채로운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컬러런에 1250명의 주자가 참가했다.

베트남 새 학년 시작, 대부분 가상 수업



6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가정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가상 교실을 통해 수업하고 있다. 2천만 명이 넘는 베트남 학생이 이날 새 학년을 시작했으나 국가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봉쇄돼 대다수가 가상 수업을 받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